

「대성당」 번역본의 문체적 특성 고찰

김순영 · 이경희
(동국대_서울)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한 해 출판되는 도서 중 대략 30퍼센트가 번역서이며, 그 중에서도 이른바 베스트셀러로 분류되는 도서의 70퍼센트는 번역서가 차지하고 있다¹⁾. 전체 출판시장에서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만큼이나 번역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져서 이제 독자들은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의 입장에만 머물러있지 않고 번역물의 품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견해를 표명하는 사례가 현저히 늘었다. 주로 대형 인터넷 서점의 독자후기, 블로그, 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자 서평은 단순히 오역의 문제를 짚어내는 차원을 넘어 번역물 전반의 품질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문제시되는 번역서에 대해 ‘리콜’이라는 어휘가 사용될 정도로 번역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²⁾. 번역

1) 2011. 11. 10일자 교보문고 북뉴스 참조.

학계 내에서도 최근 들어 번역평가 및 평가기준, 번역비평에 대한 담론 등 번역의 품질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접근³⁾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독자들의 서평이든 학문적 관점에서의 번역과 번역평가 그리고 번역비평에 대한 논의에서든 번역 품질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은 여전히 원본과 번역본의 비교를 통한 오류분석, 어휘 및 문법 차원에서의 충실성 문제를 다룬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번역이 태생적으로 원본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당연한 현상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번역작품 또한 그 자체로서 하나의 문학작품임을 고려했을 때, 작품의 문학성 유지 역시 번역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⁴⁾. 물론 작품의 문학성을 판단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거나 본 논문에서는 문체적 특성을 위주로 원본과 번역본, 그리고 두 번역본을 대조 분석하여 각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해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룰 작품은 미니멀리즘의 대표적 단편소설중 하나인 레이먼드 카버(Raymond Carver)의 「대성당(Cathedral)」으로, 원본과 두 편의 번역본의 문체적 특성을 기술번역학적 관점에서 비교 고찰해볼 것이다. 미니멀리즘 작품은 화려한 미사여구나 수식어의 사용을 극도로 절제하며,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문체적 특성이 매우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번역본에서 이러한 문체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곧 이 작품의 문학성 유지와도 관련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조 분석의 방식으로 원본과 번역본, 그리고 두 번역본의 문체적 특성이 번역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작가별 반영 전략이 유사한지 혹은 차이를 보이는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로 인해 번역문학 작품으로서의 결과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해볼 것이다. 번역학 연구에 있어 기술번역학적 접근에 대하여 원본과 번역본의 평면적인 대조 혹은 비교에만 그

-
- 2) 2011년 하반기 스티브 잡스 전기 한국어판을 둘러싼 오역 논쟁이나 2005년 『다빈치 코드』 한국어판을 둘러싼 오역시비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 3)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2005), 이상원(2004, 2006, 2008), 전현주(2006, 2008) 등.
 - 4)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번역서는 기술번역을 제외한 단행본 형태의 문학번역을 말한다.

치고 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번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품질 확보, 나아가서는 건설한 평가와 비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이 될 번역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충분한 기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견해 표명과 그에 대한 또 다른 논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번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을 것이며, 번역 혹은 번역물에 대한 기술적 연구의 결과들이 충분히 축적되어야만 번역의 품질 확보, 평가, 나아가서는 건설한 번역비평 문화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2. 기술번역학적 관점의 기존 연구들

기술번역학적 관점에서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언어적 특성을 중심으로 번역에 나타난 오류 유형을 분류하여 오역 사례를 제시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번역학 연구에서 문화적 전환을 맞이하면서 문화소 번역 양상과 번역전략에 관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원본과 번역본의 대조분석연구에서 나아가 원작의 문체적 특성 보존, 번역비평 등과 같은 분야로 연구의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먼저, 오역사례를 분석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호사카 유우지(2001)는 일본어 소설의 한국어 번역에서 발생한 오역의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단순 오역, 어학적 오역, 독해상의 오역, 문화적인 의미 파악 부족에 의한 오역, 역사적 사실에 관한 오역 등 오류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분석했다. 유은경(2008) 역시 일한 번역본을 대조하여 오역을 분석하고 원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함과 동시에 오역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오역의 유형을 직역에 충실하지 않아서 생긴 오역, 편의적인 의역으로 인해 생긴 오역, 문맥을 짚어 보지 않은데서 생긴 오역, 이문화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데서 생긴 오역, 기존 번역의 표절로 인한 오역으로 분류하였다. 최의식(2008)은 발자크의 대표작인 『고리오 영감』의 원문과 두 번역본을 비교하여 번역의 문제점을 비평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오역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관용어구, 원문의 누락, 문화의 차이, 인지적 맥락, 어휘적 관점으로 분류하여 오역 사례를 제시하였다. 김영신(2009)은 등가성 측면에서 원문과 번역문의 비교를 통해 번역가의 선택

과 역량에 따른 오역의 사례와 오역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오역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재출판 되기에 이른 『다빈치코드』에 나타난 오역 사례를 호사카 유우지(2001)의 오역 유형에 작품 전체의 플롯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오역의 유형을 추가하여 오역사례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논의하였다. 김옥동(2010)은 번역의 목적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오역이 아닌 비기능적인 번역으로 보는 기능주의적 번역이론에 대해, 기능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하더라도 오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문학작품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역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오역에는 번역자의 부주의와 경솔로 인한 오역, 오자와 탈자의 오역, 언어의 오역, 속담과 격언의 오역, 문화의 오역, 고어와 폐어의 오역, 수사적 언어의 오역, 한자 관용어의 오역 등이 있다.

번역학 연구의 관심이 점점 더 목표 텍스트 쪽으로 옮겨가고 문화적 전환을 맞이함에 따라 원본과 번역본의 비교연구도 단순한 오역 사례 제시에 이어 문화적 요소의 번역양상 및 전략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진기정(2008)은 문학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에 대한 연구에서 이근희(2005)의 문화소 범주 유형에 따라 문화소를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사용된 번역 전략을 논의 했다.

어휘나 문장 번역의 오류, 혹은 고유한 문화적 요소의 어휘나 문장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는 원본과 번역본의 대조분석연구와 더불어 작품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문체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왔다. 안소현(2002)은 한국단편소설의 독일어 번역에 나타난 문제점을 단어 및 어휘, 결속구조, 어조, 시상(時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번역가가 문학작품에 나타난 문체(文彩)라는 섬세한 요소를 인식하고 번역에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백수진(2004)은 중한번역에서 문학문체와 신문문체의 특징과 번역방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특히 문학번역에서 문체를 형성하는 요인을 형상적 표현, 문화적 어휘의 번역, 단어나 문장 첨가, 해석의 중의성, 결속구조의 등가성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문체를 살려 번역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백수진(2005)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동화문체의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어로 된 동화의 한국어 번역본에 나타난 문체적 특징을 부연과 첨가, 생략과 삭제, 변환, 이동과 정돈으로 분류하여 분석했는데, 원문의 문체적 특성이 번역본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동화라는 장르가 갖는 문체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민난식(2005)은 프랑스어 작품의 영역본과 한역본에 사용된 번역방법을 비네와 다벨네(Vinay & Darbelnet)가 제시한 차용, 모사, 축어역, 치환, 변조, 등가, 번안의 7가지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비교문체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할 때 빈도수가 높은 번역방법과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박선희(2008)는 플로베르(Flaubert)의 작품 『마담 보바리』의 자유간접문체 중 ‘말’의 번역 경향을 분석하였다. 구문 100개를 발췌하여 문장 종류의 변화, 종결어미에 의한 구분, 인칭대명사의 번역, 동사시제의 번역, 추가된 구어표현과 높임말로 구분하여 세 번역본을 분석하여 품질을 평가하면서, 문학작품번역에 있어 형식이 갖는 의미의 번역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미애(2010)는 황순원의 『소나기』의 세 영역본을 일문일단락, 시제의 혼용, 어구의 도치, 어구의 반복이라는 장치를 중심으로 문체적 특징이 번역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문체 번역의 중요성과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박옥수(2011)는 박완서의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의 두 영역본에서 관형절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통사적 변이의 관점에서 원문의 형식 유지여부를 분석하여 원문 특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번역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작품의 번역에서 문체적 특성의 유지가 중요하며, 문체도 번역에 반영될 수 있음을 제시한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원작의 문체적 특성이 번역에 반영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번역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문체적 효과 구현이 문학성 유지에 중요함을 보이고자한다.

3. 작품 분석 및 논의

본 연구의 분석대상 *Cathedral*(1984)은 레이먼드 카버(Raymond Carver)의 단편소설로 전미비평가 그룹상과 풀리처상 후보작으로 오르기도 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단편집을 카버의 단편집 중 창의력, 문장력, 작가 특유의 맛이 최고로 어우러져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책의 대표작품인 「대성당」의 사실적이며 간결한 언어구사는 사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정확히 전달되며 현대 단편소설의 작법을 제시한 명작이라고 하였다(최봉애 역 1996

작품해설)⁵⁾. 카버 소설에 나타난 소재의 미니멀리즘은 언어의 미니멀리즘을 동반하며,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은 경제성이다.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 어휘 외에는 형용사, 부사 혹은 문맥의 흐름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어구 등 다양한 수식어구의 사용을 극도로 절제하고, 관용어구와 구어의 사용을 일상화한다. 또한 영어의 기본문법을 대부분 잘 지키지만, 구두점 사용을 하지 않거나, 단수인 화자를 복수 대명사로 쓰는 등 비문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노현균 2009).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대성당」은 카버의 이러한 문체적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 그의 글쓰기 특성이 번역본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3.1 미니멀리즘의 특성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미국 시각 예술에서부터 시작하여 미술, 디자인, 음악, 문학 등 미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행하게 된 운동으로, 그 기본원칙은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하고 본질적인 것만을 나타내자는 것이다. 미니멀리즘이 확산되면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소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문학양식으로서 미니멀리즘이 추구하는 기본원칙은 최소한의 표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데에 있다.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작품에서 표현과 전달을 함에 있어 과도한 군더더기 표현을 피하며, 반드시 있어야 할 핵심적인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니멀리스트들은 문체나 표현 또는 수사학 등 소설 미학적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작중인물, 배경, 플롯 등에 있어서도 극단적으로 최소화하여 기존의 전통적 소설구조를 해체시킨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의 작품에서는 일관된 상징적 의미나 주제가 부각되지 않으며, 따라서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중략). 경제적이고 축소 지향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미니멀리즘은 짧은 단어, 짧은 문장과 단락, 아주 짧은 이야기들을 사용하는데, 극도로 축소된 어휘와 구문에 의해서 문

5) 본 연구에서는 1989년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을 모아 출판한 *Where I'm Calling From*에 수록된 *Cathedral*을 참고하였다.

장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서술어가 이어져 나오지 않으며 복잡한 종속 절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형용사구나 부사구 같은 수식어를 극도로 제한하는 수사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들은 복문보다는 중문, 중문보다는 단문을 사용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비유나 수사를 사용함으로써 단편소설이나 중편을 통해서 미니멀리즘의 특징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주호 1998: 32-33)

미니멀리스트들은 일상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논리적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탈형식주의적인 방법,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글쓰기 특성은 문학작품에 존재하는 문체적 효과와 연결된다. 문체란 모든 작품의 본질적인 특성이며, 한 시점에서 작가의 개성과 감정의 결과물이고, 작가의 특성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없다(Savory 1957: 54, Gutt 2000: 130에서 재인용). 문학작품에서 문체는 작가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작가는 문체를 통해 말한다. 파울러(Fowler 1977: 103)는 개인의 마음(mental)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내면 문체(mind-style)’라고 하면서, 인물의 편견, 견해, 가치와 같은 세계관(world-view)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작가는 다양한 언어 기법을 통해 다양한 담화를 표현할 수 있으며, 작중 인물의 성격,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고 인물간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3.2 등장인물간의 심리적 거리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작품의 대강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설의 도입부는 서술자인 주인공의 아내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온 맹인의 방문 소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남편은 맹인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결혼하기 전 아내는 맹인에게 책 읽어주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서술자의 아내는 책 읽어 주는 일을 그만두고 애인이던 공군장교와 첫 번째 결혼을 하지만, 군인 남편을 따라 이곳저곳을 떠도는 삶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사람들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며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결국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진 후 서술자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된다. 맹인은 책 읽어주는 일을 하러 온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였지만 아내는 암으로 죽는다. 죽은 아내의 친척집에 들렀다가 기차를

타고 서술자의 아내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맹인과 아내는 책 읽어주는 일을 그만두고 첫 번째 결혼과 두 번째 결혼을 하여 사는 10여 년간 서로의 이야기를 테이프에 녹음하여 우편으로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맹인은 어둡고 가라앉은 서술자의 태도와는 달리 활발한 모습이다. 이 두 사람은 하루 밤을 보내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하는 일상생활을 공유하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이 통하게 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성당에 대해 맹인에게 설명하던 중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서술자는 맹인의 제안으로 연필을 같이 잡고 대성당 그림을 그리면서 대성당의 모습을 설명하게 된다. 서술자의 손을 따라 맹인의 손이 움직이면서 맹인은 대성당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눈을 감아 보라는 맹인의 말에 서술자는 눈을 감고 대성당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처럼 단 세 명의 등장인물과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작품에서 카버는 지극히 표면적이고 단순한 글쓰기 방식을 통해 평범한 세 인물의 평범한 일상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체적 특성은 간결하고 꾸밈없는 문체를 통한 인물의 감정 표현으로, 이기적이고 냉담하며 낮은 사람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불안정한 서술자의 모습이 작가 특유의 문체를 통해 드러난다. 또한 주인공인 서술자와 그의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원활한 소통이 결핍되어 있는데, 이러한 등장인물들 간의 심리적 거리는 간결하고 사실적인 글쓰기를 통해 묘사된다. 그러므로 카버 특유의 글씨기 방식, 즉 그의 문체적 특성은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의미의 전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체적 특성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3.3 사례분석

우리나라에는 현재 두 종의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둘 다 「대성당」이라는 제목으로 레이먼드 카버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전집 형태를 띠고 있다. 첫 번째 번역본은 전문번역가 안종철(1996)의 번역으로 레이먼드 카버 소설 전집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에 수록이 되어 있으며, 두 번째 번

역본은 소설가이기도 한 김연수(2007)의 번역으로 출판된 『대성당』에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먼저 나온 안중설의 번역본을 TT1으로, 후에 나온 김연수의 번역본을 TT2로 칭하기로 한다.

먼저 작품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구문층위의 문체적 효과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세분화된 어휘층위에서는 특정 어휘 선택으로 인한 효과가 번역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3.3.1 구문층위에서의 문체적 효과

아래 <예시 1>은 소설의 도입부로 아내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온 맹인의 방문 소식에 대한 남편의 심경을 그리고 있다. 노드(Nord 2005: 224)는 특히 소설에서 첫 부분은 그 소설을 해석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저자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인물, 시간, 장소를 표현하는 방식이 전체 텍스트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작품의 첫 단락에서 카버는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 즉 서술자인 남편, 그의 아내, 그리고 아내의 맹인친구를 소개하고, 그들의 현재 물리적인 위치, 나아가서는 아내의 맹인친구의 방문을 받게 된 남편의 달갑지 않은 감정까지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카버는 이처럼 많은 정보를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로 풀어내지 않는다. 그는 화려하고 복잡한 수식어구 없이 짧은 문장, 표면적이고 직접적인 설명으로 이러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것이 바로 「대성당」이 갖는 특성이며, 작가 카버의 글쓰기 특성이다.

<예시 1>

ST: (1) This blind man, an old friend of my wife's, he was on his way to spend the night. His wife had died. So he was visiting the dead wife's relatives in Connecticut. He called my wife from his in-law's. Arrangements were made. He would come by train, a five-hour trip, and my wife would meet him at the station. She hadn't seen him since she worked for him one summer in Seattle ten years ago. But she and the blind man had kept in

touch. 2) They made tapes and mailed them back and forth. I wasn't enthusiastic about his visit. He was no one I knew. And his being blind bothered me. My idea of blindness came from the movies. In the movies, the blind moved slowly and never laughed. Sometimes they were led by seeing-eye dogs. (3) A blind man in my house was not something I looked forward to. (356)

TT1: (1) 아내와는 오랜 친구 사이라는 그 눈먼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간단다. 얼마 전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그는 코네티컷에 사는 아내의 친척들을 찾아갔다가, 처가집에서 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렇게 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코네티컷에서 우리 집까지는 기차로 다섯 시간이 걸린다. 아내가 역으로 마중을 나가기로 했다. 아내는 10년 전 시애틀에서 그 장님 밑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동안 두 사람은 줄곧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2) 서로 자기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녹음해서는 우편으로 주고받았던 것이다. 나는 그 양반이 우리 집엘 온다는 게 별로 탐탁치가 않았다.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게다가 그가 장님이라는 사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나는 장님이라면 영화에서 본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다. 영화에서 나오는 장님들은 동작이 아주 느리고 결코 웃는 법이 없다. 때로는 길잡이 개의 안내를 받기도 한다. (3) 내 집에 그런 장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확실히 가슴 설레는 기다림은 아니었다. (211-12)

TT2: (1) 그 맹인, 아내의 오랜 친구인 그가 하룻밤 묵기 위해 찾아오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죽었다. 때문에 그는 코네티컷에 사는, 죽은 아내의 친척을 방문했다. 그 친척집에서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약속이 잡혔다. 그가 다섯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오면, 아내는 역에서 그를 만날 예정이었다. 십 년 전 여름, 시애틀에서 그를 위해 일한 뒤로 그녀는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와 맹인은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 (2) 그들은 녹음한 테이프를 주고받았다. 나는 그의 방문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나는 그에 대해 아는 바가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앞을 보지 못한

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다. 맹인에 대한 나의 생각은 순전히 영화에서 온 것이다. 영화에서 보면 맹인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절대로 웃지 않았다. 때로 그들은 맹인안내견을 따라가기도 했다.
(3) 내 집 안에 맹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나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323-24)

위 <예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의 (1)은 남편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인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아내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이성 친구가 자신의 집으로 오고 있다는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서술자인 남편의 불편한 심경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ST에서는 ‘this blind man’이라는 어구를 문장의 맨 앞에 배치하여 서술자인 남편이 갖는 맹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에 TT1의 (1)에서는 이러한 구문의 배열순서가 고려되지 않아 남편의 감정 상태를 읽어내기가 어렵다. 또한 아내 친구인 맹인의 성별 또한 드러나지 않아 남편이 느끼는 미묘한 질투의 감정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으며, 번역본 자체로만 보면 아내의 오랜 친구가 집에 온다는 사실을 아무런 불편한 감정 없이 말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반면에 TT2는 ST와 같은 순서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맹인’이라는 정보를 맨 앞에 배치하고, 다음으로 ‘아내의 오랜 친구’, ‘하룻밤 묵기 위해 찾아오고 있었다’는 정보를 마지막에 배치하였으며, 원문에서와 같이 쉼표를 사용하여 짧고 명료한 문체를 보존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번역본 자체의 가독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TT1의 정보 배열 방식이 TT2에 비하여 오히려 더 유려하고 편안하게 잘 읽힌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정보의 배열순서뿐만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의 “얼마 전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아내의 친척들을 찾아갔다가, 처가집에서 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등과 같은 서술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동일한 부분이 TT2에서는 “그의 아내는 죽었다.”, “죽은 아내의 친척을 방문했다.”, “그 친척집에서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등과 같이 보다 직접적이고 다소 투명스럽기까지 한 서술 태도를 보여 준다. 여기에서 다시 ST 저자의 이야기 방식, 즉, 그만의 독특한 문체를 상기해보면, 가독성 면에서는 TT1이 더 쉽게 읽힌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독자들로 하여금 작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ST의 문체적 특성을 살린 TT2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위 <예시 1>의 (2)는 간결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ST의 문체적 특성이 TT1과 TT2에서 극명하게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TT1은 ST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명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가독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수식어가 첨가됨으로써 ST와는 달리 문장이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에 TT2는 ST에서처럼 간결한 서술방식을 택함으로써 문체 효과를 보존했다고 볼 수 있다.

<예시 1>의 (3)에서 맹인의 방문에 대한 서술자의 감정은 이야기의 말미에서 보이게 될 서술자의 감정과 대비되는 것으로 두 등장인물간의 심리적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작품의 전체적인 플롯을 염두에 둔다면 소설의 첫 부분에 나타난 서술자의 감정 표현과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서술자의 감정 표현의 변화 또한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 TT1은 맹인의 방문에 대한 감정을 ‘설레는 기다림은 아니었다’고 예들러 말하고 있으나 TT2는 맹인의 방문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훨씬 단호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서술자가 느끼는 심리적 거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러면 이러한 거리가 이야기의 말미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 <예시 2>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으로 서술자인 남편과 맹인이 함께 대성당을 그리는 장면이다. 카버는 자신이 작품에서 쓰는 인물과 상황에 대해 깨끗한 해결을 보여준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며 결론이나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작가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버는 독자들의 참여를 중요시하여, 작품에 나타난 공간에 독자를 불러들여 독자 자신이 생각하게 한다 (Runyon 1992).

<예시2>

ST: So we kept on with it. His fingers rode my fingers as my hand went over the paper. It was like nothing else in my life up to now. Then he said, "I think that's it. I think you got it," he said. "Take a look. What do you think?"
But I had my eyes closed. I thought I'd keep them that way for a

little longer. I thought it was something I ought to do.

“Well?” he said. “Are you looking?” My eyes were still closed. I was in my house. I knew that. But I didn’t feel like I was inside anything.

“It’s really something.” I said. (374-75)

TT1: 그렇게 우리는 계속 그림을 그렸다. 내 손이 종이 위를 옮겨다니는 동안 즐곧 그의 손가락이 내 손 위에 얹혀 있었다. 지금까지 내 평생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이윽고 그가 손을 놓았다. “다 된 것 같군. 한번 보시오. 어때요?”. 하지만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아마 그 뒤로도 한참 동안 그렇게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다. 웬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될 것 같았다.

“어때요?” 그가 흥미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보고 있소?”

나는 아직도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내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도무지 어딘가의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정말 멋진 그림이군요.” 내가 중얼거렸다. (238)

TT2: 그래서 나는 계속했다. 내 손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동안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에 딱 붙어 있었다.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에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때 그가 말했다. “이제 된 것 같은데. 다 그린 것 같아.” 그는 말했다. “한번 보게나. 어떻게 생각하나?”

하지만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조금만 더 계속 그렇게 있어야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어때?” 그가 말했다. “보고 있나?”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우리집 안에 있었다. 그건 분명했다. 하지만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 나는 말했다. (352-53)

원만하지 않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색함과 무관심, 냉담함은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감정이다. 그러므로 소설의 첫 부분부터 드러나고 있는 남편의 맹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불편한 감정은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남편과 맹인이 손을 함께 잡고 대성당을 그리는 장면과 크게 대비된다. 이 이야

기 전반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정한 인간관계의 모습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편이 눈을 감고 맹인과 같은 보이지 않은 상황이 되어 맹인과 함께 그린 대성당을 바라보고 느끼는 특별한 감정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문체적 장치가 된다. 독자에 따라 느끼는 효과는 다를 수 있으나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던 맹인이라는 존재와 남편 간에 한 줄기 소통의 빛을 느끼게 될 지도 모른다.

장 보아스-베이에르(Jean Boase-Beier 2011: 43)는 문학번역에서 주목할 것은 의미와 함축(implicature)의 보존도 아니고 함축만의 보존도 아니며, 정해지지 않은 개방성의 보존으로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텍스트의 형식적 요소로 유발되는 효과를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트(Gutt)는 문체적 특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화자가 의도한 해석으로 독자를 이끄는 실마리(clues)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의사소통 실마리(communicative clues)라고 하였다(2005: 134). 그렇다면 텍스트의 형식적 요소로 유발되는 문체적 효과를 읽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번역가의 몫일 것이다.

원천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을 보존하여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지나, 번역가는 의미와 문체적 특성을 모두 보존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목표 텍스트에 그 효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TT1과 TT2의 번역은 다소 다른 효과를 낸다. TT2는 대단하다는 감탄의 말에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느낌인지 밝히지 않아 그 해석의 폭이 다양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반면, TT1은 ‘정말 멋진 그림’이라고 번역하여 해석의 길을 막았다고 할 수 있다. 번역가에게 있어 오역을 피하는 것은 기본이며 작가의 문체적 특성을 고려하고 텍스트의 형식이 갖는 의미를 살리려는 인식과 노력은 어렵지만 중요한 임무일 것이다.

3.3.2 어휘층위에서의 문체적 효과

이 작품에서 사용하는 문체적 효과의 특징 중 하나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정체성의 결핍이다. 인물의 정체성 결핍은 등장 인물간의 의사소통의 결핍과 인물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거리감과 불완전성을 나타내주는 요인이다. 작품에서 주요 등장인물인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맹인

과 맹인의 아내 이름만이 나타나는데, 이 두 인물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서술자인 남편이 두 인물에 대해 갖는 선입견과 태도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맹인의 이름은 ‘로버트(Robert)’라고 소개되지만, 남편이 로버트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는 소수이며, 대부분 ‘the blind man’ 또는 ‘he’로 언급한다. 이는 곧 남편이 맹인에게 갖는 불편한 감정과 거리감의 표현이다. 아내의 첫 번째 남편 또한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대명사, 직책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보통명사로 지칭된다. 그러면 다음의 두 사례를 통해 인물간의 심리적 거리를 살펴보자.

부부의 집에 도착한 맹인과 저녁을 먹은 뒤 거실에 나와 특별한 이야기거리를 찾지 못해 어색함을 피하려고 텔레비전을 켜고 술을 마시는 중이다. 그 동안 아내는 침실로 올라가고 맹인과 단 둘이 있는 어색함을 피하려고 술 한 잔을 더 권하고 마리화나를 피워보겠냐고 권하며 맹인 옆에 앉아 있는 중에 아내가 내려온 상황이다. 함께 저녁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남편은 여전히 맹인의 존재가 불편하다. 남편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맹인은 타인일 뿐 가까워지고 싶은 존재도 아니고 오히려 맹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질투심의 대상이다.

<예시3>

ST: My wife sat on the sofa between the blind man and me. (367)

TT1: 아내는 소파로 다가와 나하고 로버트 사이에 끼여 앉았다. (227)

TT2: 아내는 맹인과 나 사이에 앉았다. (340)

<예시 3>의 ST에서 서술자인 남편은 여전히 그를 ‘the blind man’이라 칭함으로써 그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드러낸다. TT1은 이를 ‘로버트’라는 이름으로 번역함으로써 남편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 거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TT2에서는 ‘맹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질투심과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는 남편의 심경을 비교적 잘 드러내준다.

위에서 제시한 예 이외에도 ‘the blind man’ 또는 ‘he’의 번역에 있어, TT1

은 TT2보다 ‘로버트’라는 이름으로 번역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ST에서 남편이 맹인에 대해 갖는 거리감과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작품 전체에서 드러나는 남편의 감정에 대한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불편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던 대상이었던 맹인에 대한 감정이 마지막 장면에서의 교감과 대비를 일으키는 작품의 플롯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작품에서 작가가 다루고 있는 주요 감정 요인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키트레지(William Kittredge)는 카버가 감정적으로는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라고(Amir 2010) 하였을 만큼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간의 심리적 거리와 감정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효과를 인식하고 번역에 반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래 <예시 4>는 아내의 전 남편에 대한 호칭을 통해 느껴지는 서술자의 심리를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예시4>

ST: My wife's officer was posted to one base and then another. (358)

TT1: 그 동안 아내의 남편은 이 기지, 저 기지를 쉴 새 없이 옮겨 다녔다.
(214)

TT2: 내 아내의 전남편인 장교는 여러 기지로 전근했다. (326)

ST에서는 전체적으로 인물을 지칭할 때 이름대신 직책 혹은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의 경우에서처럼 아내의 전 남편을 지칭할 때도 이름 없이 인물의 직책으로 부른다. 위의 예시 이외에도 원전에서 아내의 전 남편을 칭할 때 장교가 되기 전에는 ‘the-officer-to-be’로, 장교가 되고 난 후에는 ‘officer’라는 계급으로 지칭한다. 원전에서 ‘husband’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재 아내의 남편으로서 전 남편에 대해 느끼는 질투심 또는 불쾌감의 표현일 수 있다. 이처럼 ST에서 선택한 어휘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TT에서도 아내의 전 남편에게 갖는 질투심과 심리적 거리감을 전달할 수 있는 어휘가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TT1, TT2에서는 모두 원전에서 사용

하지 않은 ‘남편’이라는 어휘를 선택하여 ST와는 다르게 이 장교가 아내의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다음의 예는 남편의 맹인에 대한 편견과 더불어 인종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예시5>

ST: She'd told me a little about the blind man's wife. Her name was Beulah. Beulah! That's a name for a colored woman. "Was his wife a Negro?" I asked. "Are you crazy?" my wife said. (359)

TT1: 아내는 그 장님의 아내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다. 이름이 벨루아라고 했다. 벨루아라고? 그건 확실히 백인 여자의 이름은 아니었다. "그 사람 아내가 깜둥이였어?" 내가 물었다. "당신 미쳤어요?" 아내가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216)

TT2: 맹인의 아내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뷰라였다. 뷰라! 유색인종의 이름이다. "아내가 니그로 아니야?" 내가 물었다. "미쳤어?" 아내가 말했다. (328-29)

맹인의 아내 이름을 듣고 남편은 이름과 민족을 연관 지어 유색인종의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아내와 남편의 대화에서 맹인의 아내가 흑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남편이 갖는 인종에 대한 편견은 맹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도 결부된다. 맹인에 대한 불편함과 부정적인 편견이 그의 아내에게도 적용되어, 맹인의 아내도 열등한 인물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는 것이다. 툴란 (Toolan 1995)은 원작에서 이름을 두 번 말하고 두 번째 이름 뒤에 느낌표를 사용한 것을 통해 그 인물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업신여기는 감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인물에 대한 편견이 번역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면, 인종에 대한 편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휘인 ‘negro’를 TT1에서는 ‘깜둥이’로, TT2에서는 ‘니그로’로 번역하였다. 원전에서와 같은 인종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TT독자 문화에서 흑인에 대한 편견을 포함한 어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TT2의 ‘니그로’란 어휘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드러내지 않는 반면, TT1의 ‘깜둥이’라는 어휘는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TT1의 어휘선택이 남편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원전에 없는 수식어가 첨가되어 번역이 어떻게 다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아래 예에서 서술자인 남편은 집에 막 도착한 맹인과의 첫 대면에서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몰라 불편한 상황이다. 친구도 없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그다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루지 못하는 고립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서술자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기만 하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없고 영화를 통해서 본 맹인의 모습이 그가 아는 맹인의 전부인 서술자에게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융통성이나 요령이 부족하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남편은 일상적인 소재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지금의 경우처럼 기차를 타고 도착한 손님과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여행이 어땠는지 묻고 있다.

<예시6>

ST: “Did you have a good train ride?” I said. “Which side of the train did you sit on, by the way?”
 “What a question, which side!” my wife said. “What’s it matter which side?” she said.
 “I just asked,” I said. (362)

TT1: “기차 여행은 어땠습니까?” 내가 짓궂게 물었다. “어느 쪽 좌석에 앉았지요?”
 “어느 쪽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아내가 발끈했다.
 “어느 쪽에 앉건 무슨 상관이예요?”
 “그냥 물어 보는 거야.” (220)

TT2: “기차 여행은 어떻게, 좋았습니까?” 내가 말했다. “그런데 어느 쪽에 앉으셨나요?”
 “뭐가 궁금한 거야, 어느 쪽이라니!” 아내가 말했다. “어느 쪽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냥 물어본 거야.” 내가 말했다. (332)

ST에서는 ‘I said’나 ‘she said’와 같이 직접화법의 전달동사 구문에서 특정 감정이나 상황을 드러내는 수식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TT1에서는 원문에서 드러나지 않는 화자의 감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번역하였고, TT2에서는 원문과 같이 수식어 없이 전달 동사만을 번역하였다. 미니멀리즘 문학에서 중요한 점은 불필요한 서술자의 목소리를 과감히 제거하여 독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주호 1998). TT1에서처럼 ‘깃갯게 물었다’라고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삽입되면 남편의 실제 심리 상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감정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은 독자의 자유로운 해석에 제한적 요소가 되며, 그 결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자세한 수식 어구를 사용하지 않는 원작의 특성은 사라지게 된다. 위의 예의 경우에서도 대화 자체만으로는 남편이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 것임을 확신할 수 없다.

3.4 분석 결과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소설 중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Cathedral*의 두 번역본, 안종철(1996)과 김연수(2007)의 「대성당」을 문체적 효과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해 보았다. 카버의 간결하고 직접적인 묘사를 통한 감정 표현이라는 문체적 특성은 작품에서 인물의 감정, 태도,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하지 않고, 타인과의 복잡한 관계 또한 원치 않는 서술자의 태도는 짧은 문장, 수식어구의 절제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은 TT1에서는 번역가가 수식어를 첨가하거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번역 방법을, TT2에서는 ST의 문장 유형을 유지하려는 번역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T2에서도 ST의 문장 유형을 모두 그대로 유지한 것은 아니었고, 남편의 맹인과 인종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특정 어휘 사용에 있어서도 그 문체적 효과를 살리지 못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어느 한 번역을 더 나은 번역이라고 선택하기 보다는 두 번역의 문체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서 보자면, 두 번역이 문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행해진 것이었는지도 중요한 판단의 요소일

것이다. 1996년에 출판된 TT1의 경우, 번역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은 볼 수 없었다. 2007년에 출판된 TT2의 경우에는 번역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달라진 시대적인 배경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실제 TT2의 출판사 서평에서는 “카버 특유의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문체를 그대로 살린 김연수의 번역은 카버 소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미학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케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문체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면에서 긍정적인 발전이라 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문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단순한 문장의 유형만이 문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작가가 선택한 서술 방식은 서술자의 감정 및 태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러한 효과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어휘 하나, 문장 하나가 갖는 의미는 그 이상일 수 있다. 원작가의 문체가 존재하듯이 번역가에게도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자신만의 개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원작의 문학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한 작가의 글쓰기 특성을 인식하고 번역에 임하는 번역가는 자신의 개성만을 고수하는 글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서게 될 것이다.

4. 맺음말

번역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번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면서 번역을 읽는 방법도 다양해져서, 작품을 즐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전과 번역본을 비교하여 영어 학습에 이용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번역한 것을 블로그를 통해 연재하면서 영어와 번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독자들도 생겨났다. 원어를 모르는 독자에게 번역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작품이다. 혹은 원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독자의 경우라도 번역은 원전과 같은 위치에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작품일 수 있다. 번역에 대한 평가 혹은 비평이 일반적인 문학비평과 다른 점은 번역이 본질적으로 원본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며, 따라서 원전과의 비교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평하는 데 있어 오역을 논하게 되고, 원전에 대한 충실성을 논하

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충실성은 언표적 의미의 충실성뿐만 아니라 원전의 형식에 대한 충실성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역시 의미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번역에서는 원전의 의미에 대한 충실성이나 번역본의 가독성뿐만 아니라 원전의 문학성이 번역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체적 효과를 통한 인물의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대성당」 번역본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동일한 번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 분석 관점에 따라 그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전작품의 경우, 현재까지도 작품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번역작품에 대한 평가와 해석 또한 시대와 분석 관점에 따라 새로운 해석과 평가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비평이 작가의 의도를 유추해보고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며 작품의 가치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번역작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평가는 번역작품을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이며, 나아가 번역품질에 대한 진지하고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보다 나은 번역을 탄생시키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 관련 담론들이 ‘문학’이라고 하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각도의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이미 확립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번역에 관한 연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므로 번역에 대한 제대로 된 담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 즉 ‘번역의 결과물’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번역에 관한 기술적 연구들이 하루아침에 번역의 품질을 높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기술적 연구가 반복 수행됨으로써 번역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축적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번역에 대한 평가나 비평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다시 순환구조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번역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 시도한 두 번역본의 대조분석은 번역에 관한 더 많은 논의를 위한 기본 자료의 축적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수행된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신 (2009) 「『다빈치코드』오역사례 연구를 통한 출판번역 시장 문제, 『통역과 번역』 11(1): 27-41.
- 김옥동 (2010) 「한국 문학의 영문 오역, 『통번역학연구』 14(1): 31-65.
- 김정우 (2005) 「한국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6(2): 29-57.
- 김주호 (1998) 「미니멀리즘, 레이먼드 카이버, 그리고 『대성당』, 『현대영미소설』 5(2): 31-53.
- 노현균 (2009) 「미니멀리즘과 레이먼드 카이버-현대 미국사회의 문화적 평가, 『현대영미소설』 16(3): 129-151.
- 민난식 (2005) 「문체론적 번역방법론: *Le Petit Prince*의 영어, 한국어 번역본 비교, 『번역학연구』 6(2): 79-101.
- 박선희 (2008) 「『마담 보바리』 자유간접문체의 번역비평,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3: 145-81.
- 박옥수 (2011) 「한영문학 번역에서 문체의 반영-박완서의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의 분석에 근거해서, 『겨레어문학』 46: 69-95.
- 박향선 (2002) 「한국 영역시 오류 원인 분석, 『번역학연구』 3(2): 63-79.
- 백수진 (2004) 「중국어텍스트 유형의 문체와 번역, 『중국어문학논집』 27: 383-401.
- _____ (2005) 「동화문체의 중한번역, 『번역학연구』 6(1): 45-63.
- 안소현 (2002) 「문체번역하기, 연세대학교 번역문학연구소 학술회의.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1』, 서울: 창비.
- 유은경 (2008) 「오역의 양상과 오역방지를 위한 제안-번역본 『도련님』 1,2장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42: 265-94.
- 이상원 (2004) 「출판 번역 비평과 번역 규범,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6(2): 39-57.
- _____ (2006) 「최근의 번역비평서적에서 나타난 번역 평가 규범 분석,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1): 123-41.
- _____ (2008) 「문학번역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번역학연구』 9(2): 149-65.

- 이기세 (1994) 「오늘의 세계문학(24) 레이먼드 카버와의 대담」, 『외국문학』 40: 130-144.
- 전기정 (2008) 「문학번역에서의 문화소와 번역전략」, 『중국어문학논집』 51: 275-99.
- 전현주 (2006) 「번역텍스트의 용인성: 번역 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2): 한국번역학회. 179-205.
- _____ (2008) 「번역비평 텍스트의 패러다임」, 『번역학연구』 9(1): 216-57.
- 정혜용 (2009) 「문학번역비평 시론- 네르발의 옥타비 번역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8: 403-37.
- 최의식 (2008) 「문학번역에 나타난 오역(誤譯)문제 -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을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45: 135-68.
- 한미애 (2010) 「황순원 소설의 문체번역 가능성-『소나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1): 293-310.
- 호사카 유우지(Yuji Hosaka) (2001) 「일본 현대소설의 오역사례」, 『번역학연구』 2(2): 145-66.
- Amir, Ayala (2010) *The Visual Poetics of Raymond Carver*, Plymouth: Lexington Books.
- Boase-Beier, Jean (2011) *A Critical Introduction to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Continuum.
- Fowler, Roger (1977) *Linguistics and the Novel*, London: Methuen.
- Gutt, Ernst-August (2000)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Manchester & Boston: St. Jerome Publishing.
- Nord, Christiane (2005)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2nd ed. Amsterdam: Rodopi.
- Runyan, Randolph (1992) *Reading Raymond Carver*,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Toolan, Michael (1995) 'Discourse Style Makes Viewpoint: the Example of Carver's Narrator in Cathedral', *Twentieth-Century Fiction: from Text to Context*. (Eds.). Peter Verdonk and Jean Jacques Weber. London: Routledge, 126-37.

<참고 사이트>

Minimalism. <http://en.wikipedia.org/wiki/Minimalism>. Accessed Dec.2, 2011.

<분석대상텍스트>

Carver, Raymond (1989) *Where I'm Calling From: New and Selected Stories*,
New York: Vintage Books.

안중설 옮김 (1996/2001)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 서울: 집사재.

김연수 옮김 (2007) 『대성당』, 서울: 문학 동네.

[Abstract]

A Study of Stylistic Features in Translations of *Cathedral*

Kim, Soonyoung · Lee, Kyonghee
(Dongguk University_Seoul)

This study aims to analyze two translations of Raymond Carver's *Cathedral*, one of the representative works of minimalist short stories, focusing on the stylistic feature and its effect in the source and target texts. Minimalists seldom use a flowery style of writing. Pursuing an economical efficiency in languages is a distinctive point of the stylistic features of minimalists. Known as a minimalist writer, Carver uses his typical writing style in *Cathedral* to manifest the character's attitude, prejudice, view and emotional distance between characters.

Writers tell through their own style of writing in their stories. Therefore, the stylistic features of the text are related to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of the work, and it might be essential for the translators to recognize a unique style of the source text and preserve it in the target text. Given this, this study explores the source and target text by contrast analysis focusing on the following factors: whether the target texts preserve the stylistic features of the source text; if so, how differently the translators try to show them in their translations; and what is an effect on the target text, a kind translated literature, by choosing certain translation strategies.

Contrastive approach in translation studies may be considered as a simple and superficial method of studies. However, sufficient fundamental studies about translations themselves are important and needed for thorough understanding of translation, securing high quality of translation and establishing a sound culture in the field of translation evaluation and criticism.

A variety of views and discussion from enough descriptive studies could pave a way to enlarge and upgrade translation studies.

▶ Key Words: style, stylistic features,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ion evaluation, translation criticism

김순영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 전공

kimsy@dongguk.edu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이론

이경희

동국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번역학전공 박사과정

lee0246@hanmail.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비평

논문투고일: 2012년 1월 26일

심사완료일: 2012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16일